

国登録文化財
국가 등록문화재
富山市郷土博物館(富山城)
도야마시 향토박물관(도야마성)

1954년 도야마 시에서 도야마 산업 대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. 이 박람회는 1945년 8월 2일, 새벽에 발생한 공습으로 도야마 시가 큰 피해를 입은 이후, 그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습니다.

박람회와 함께 기념적으로 건설된 영구 건축물이 바로 도야마시 향토박물관 (도야마성)입니다. 이 박물관은 도야마 성 구 혼마루 구로가네몬(旧本丸鉄門) 유적지 위에 세워졌으며,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. 특히 이 건축물은 성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삼층 4층의 천수각(망루가 있는 주요 탑)과 이중 2층의 작은 천수각이 특징입니다. 이 건물의 외관은 히코네성이나 이누야마성 같은 현존하는 천수각을 참고하여 설계되었습니다. 이러한 천수각 건설은 전쟁 후 일본에서 최초로 선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박람회 기간 동안 도야마 시 향토박물관은 “미의 전당”으로서 각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. 특히 건물의 최상층에서는 도야마 시가뿐만 아니라 다테야마 연봉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.

박람회가 끝난 후, 이 건물은 향토박물관으로 사용되었으며, 향토를 소개하는 주요 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시내 중심지의 랜드마크로 시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. 2003년부터 약 2년에 걸쳐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, 내부를 새롭게 꾸며 방문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. 건설된 지 반세기가 지난 이 건물은 도야마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, 전쟁 후 복구 시대를 대표하는 유산으로서 2004년에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